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익산시을선거구

2016.4.13

책자형 선거공보



익산! 다시 시작합니다!



기호 **3**

익산(을)국회의원 후보

조배숙

항상 사람들로 넘쳐났던 대문밖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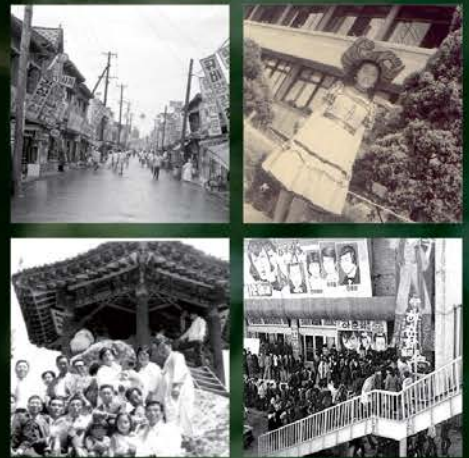
서울의 명동에 비견되던 중앙동에서 태어나 이
리의 영정동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항상 사람들로 넘쳐났던 대문 밖 세상은 어린
나에게 신선한 자극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더
큰 세상과 꿈을 위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
한민국 최초의 여성검사, 여성검사 1호라는 타이
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후 판사와 변호사로 법조계를 모두 거치며
아무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 인생길의 풍경을 이루었던 내 고향 익산의
모습은 넘치던 사람도 활기찬 열기도 어느덧 겨울
처럼 초라해졌습니다. 고향에서 제게 주었던 지
지와 환대속에 잠시 잊었던 내 고향의 부족함, 아
쉬움에 더욱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제 익산의 활기와 새로운 시작은 저 자신의
활기찬 삶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 고향 익산은 제게 보석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보석같이 귀하고 빛나는 곳
이지만 제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 옵니다.

흙 속의 팥물을 다듬고 어루만져서 빛나는 보석
이 만들어지듯, 이름 없이 묻혀 있던 저 배숙이를
알아봐주고 캐내어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해주었
고, 3선의 중진의원으로서 힘을 실어 준 곳이 익산
이고 익산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익산에서 자란, 익산의 큰 사람

3 조 배 숙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민의당

강한 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개혁적 정당, 호남이 제대로 평가받는 정당,
총선승리와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정당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국민의당 창당에 나섭니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선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불안하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이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또 내일마저 오늘과 같다면 이제 누군가는 희망의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참고 사셨고, 우리도 참고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정치를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속이가 다시 시작하는 익산 프로젝트

1 공정성장을 위한 국민의당 1호 법안 제정에 헌신

- 공정성장과 격차해소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바꿀 「국민의당 창당1호 법안」인 "낙하산 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의 제정 주도

2 미래 희망을 키우는 교육도시 익산의 기능 강화

- '온종일 돌봄교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학숙 분산설치 및 선발 인원 확대 방안 마련
-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인성진로교육 체험관 설립추진
- 미래 세대에 우리 전통음악 판소리를 접할 수 있는 교과 편성과 교과서 재편 추진
- 초중고 역사교과서에 익산 왕궁역사 수록 및 미륵사지 사리장엄의 국보 추진

3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

- 농촌의 고령화와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할 숙식을 함께하는 '9988쉼터' 설치 및 친구 맺어주기 운동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보육시설 확충
- 임신부를 위한 전용 콜택시 운영
- 고령시민을 단순 돌봄대상이 아닌 사회의 적극적 일원으로 활동하게 유도하는 고령시민 교육과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 농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노선개편 및 시간 조정과 각 단위지역별 순환미니버스 추진

낙선, 그 이후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서서 기업도 유지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뭔가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 함께하다 보니 현직에 있을 때 하고는 또 다른 익산발전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익산의 발전은 정체되고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현안 사업들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정말 성장잠재력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도 우수하고 열정이 넘칩니다. 익산사람들인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부분 정치의 몫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지역발전과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 많이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3선의원의 경험과 관록을 더해 익산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4년간 멈춰버린 익산 발전의 시계를 다시 돌려 익산을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저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 후 4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 자신도 낙심하고 또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셨던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시민들의 격려로 다시 일어 설 수 있었습니다.

이 후에 줄곧 익산을 떠나지 아니하고 4년 동안 익산 구축구역을 발로 뛰면서 익산시민들에게 한 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의당

익산을 더 사랑하게 된
3조 배 속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확신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정치와 정치 바깥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상생의 정치로 가치와 비전을 함께 만들고, 개방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목표를 찾아가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가 한심하다고 외면하면, 정치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바뀝니다.
공직의식이 투철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정치와 국정 of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에 냉소적인 젊은 세대들도 정치의 주체로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화합과 단결의 정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야만 세대 간의 갈등도 해소하고 젊은 폐기와 경륜이 어우러질 것입니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살아온 이 땅의 풀뿌리 시민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정치, 국민 중심의 정치가 담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배속이가 다시 시작하는 익산 프로젝트

4 명품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국내·외 식품산업박람회 개최

- 국내의 식품산업 업체 및 유관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식품 생산 과정과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체험관광형 산업단지 구축
- 공장 체험관광과 식음료, 식품기기 등을 전시 판매하는 국내의 식품산업박람회 개최
- 식품기업들의 주력 아이템과 연계하여 각종 국내의 식품산업경연대회 개최
- ※ 예 : 익산의 대표적인 기업인 (주)하림의 닭을 주제로 하는 국제식품산업경연대회 운영
- ※ 예상효과 ① 식품클러스터 및 익산을 세계적으로 알릴 절호의 기회 확보
- ② 대회 기간 중 식품산업 관련 공공기관, 기업 및 일반 관광객들의 방문과 체류에 따른 지역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

5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정비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시 담보나 보증서를 후취담보로 전환하고 관련 행정서류를 간소화
- 최대 5억 원까지 지급되는 소상공인 특화자금을 서비스업까지 확대 지원하며 최저 금리적용을 추진
-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청년 고용과 창업을 촉진하는 시스템 확립

6 보석마을 및 보석가공 연관산업 유치로 보석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보석마을 건립으로 체험관광형 다운타운 조성 and 새로운 슬로우시티 육성
- 보석 테라피센터 설치를 통해 보석연관 산업 기반 확장
- 보석가공 관련 U턴기업 유치, 지원 및 생산과 판매, 관광을 아우르는 보석가공 체험 관광형 공장 신설

호남민심의 변화

우리 호남은 전통적으로 제1야당의 지역적 기반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호남은 엄혹한 군부독재시절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루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친 대기업 정책으로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800만 비정규직, 수많은 자영업자, 대기업에 종속된 하청업체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가계부채는 1200조에 이릅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대선후보 때의 공약 파기로 보육 교육현장에서의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무능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제 1야당은 정권교체의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연이은 재보선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기득권과 친노 패권주의, 권력투쟁에만 매몰되어 무기력한 야당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오랜 기간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었던 호남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나 배려가 없었고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깊은 실망감에서 호남에서 민심이 이반되었고 양당구조의 폐해를 지적하고 정권교체와 새로운 개혁을 표방하는 국민의당이 창당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고 지지를 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당에 몸 담으면서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겠습니다.

강한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개혁적 정당, 호남이 제대로 평가받는 정당, 총선승리와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정당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과 비소외계층,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런 구분을 통해 나누기보다는
국민의당은 당의 이름처럼
국민을 하나로 뭉쳐줬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 정책과 관심은 소외된 사람들과 장애인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당

익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3조 배 속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민의당



정치의 주체들이 확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도 끝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국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명령하실 때입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 단호한 결심을 보여줄 바로 그 시간입니다.

10년 집권으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는 '중단' 을 명령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었음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며 도도하게 흘러 온 낡은 정치를 깨뜨리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와 행동양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바뀔 때 정권교체도 가능하고 위기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속이가 다시 시작하는 익산 프로젝트

7

생명산업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시스템 구축
-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 거점 가공센터 설치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물의 발굴 및 육성 지원
-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로 도농간 협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농식품관련 창업보육센터 운영

8

공정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에 연동하는 하청업체 납품단가의 인상을 체계 확립
-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유통업체와 계약체결시 조정위원회 확인 절차 의무화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영세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가접수 제도' 시행

9

외국인 노동자 관리지원 대책 및 외국인의 날 지정

-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중국, 태팔, 필리핀, 베트남 등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선보이고 함께 어울리는 외국인의 날 지정 및 운영
-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누가 시작했습니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입주할 기업 유치 실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익산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큰 인물이 필요합니다.

익산 역사유적지구 고도보존 육성사업

금마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백제문화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도립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이 국립 박물관으로 승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역사유적지구 고도보존육성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익산 복합문화센터 건립

2015년 4월 '익산 예술의 전당' 개관 후, 익산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즐기는 공간은 물론,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문화예술로 시민들이 하나로 화합하고
나아가 익산에 문화예술의 향기를 전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18대 주요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조배숙이 약속하면 꿈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멈춰버린 익산 4년!
다시 시작합니다.
”

국민의당

익산의 목소리를 가진
3 조 배 숙

중요한 이때에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익산
을 다시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밀어 붙이는
힘과 열정이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경험과 경륜을 가진 다선 중진위원이 나서서 중
앙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조배숙이 해 내겠습니다.

저 조배숙은 도전과 열정의 아이콘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검사, 판사와 변호사, 그
리고 정치입문, 저는 제게 주어진 삶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갈 길은 분명합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를 넘어선 '합리적 개혁'입니다.**

역사적으로 낡은 것은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낡은 것이 물러갑니다.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담대한 결단과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낡은 정치를 깨뜨리는 새로운 정치, 강력한 혁신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정당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 국민의 참여만이 담대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미래를 위한 전진이나 현실의 타성에 얽매인 좌절이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서 우리의 아들딸들을 위해서 새 출발의 책무를 나누어 짊어집니다.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에 동참하면서 새정치의 대장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역사의 한 길에 서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가슴이 고동치는 벅찬 감동의 정치를 향해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배숙이가 다시 시작하는 익산 프로젝트

10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추진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 유치)

- 왕궁유적지구 별 보기 관광 마케팅('백제의 별을 보다') 및 어둠체험관 운영
- 익산역 승차권 소지자에 대한 할인 혜택 등 KTX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익산 역사유적지구 고도 보존 육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 익산만의 특징을 살린 문화·예술 공연과 방문프로그램 상시 운영
 - ※ 예 ① '고향역 콘서트' - 2015년 10월 08일 익산역 광장에서 전국 최초로 나훈아의 "고향역" 음 모티브로 열린 문화예술공연을 매년 정례화
 - ② '고향역 관광열차' - 서울 등에서 관광객들이 익산 지역으로 편리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상시 운영
- 미륵사지의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과 연계한 상설 문화예술공연장 건립추진
- 백제왕궁과 미륵사지 복원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륵사지 인근 군부대와 사격훈련장 이전 또는 변경 추진

11

익산 3대 박물관 및 5대 종교 유적을 잇는 순례길 프로그램 운영

- 3대박물관
 - ① 보석박물관(왕궁면 통용리) ②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금마면 기양리) ③ 왕궁리유적전시관(왕궁면 왕궁리)
- 익산 중심 순례길 프로그램 관련 종교유적(원불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유교)
 - ① 원불교 익산성지 ② 미륵사지 및 국보 제11호 미륵사지석탑 ③ 나바위성당 ④ 두동교회 ⑤ 관내 4개 향교

※ 예상효과 | 2천년 고도 익산의 역사적인 유물, 유적과 종교적인 상징물 등을 통해 관람객의 호기심을 유발하게 될 것이므로
국제적인 역사, 문화, 종교차원의 많은 방문객이 익산을 지속적으로 방문 할 것으로 기대

“**멈춰버린 익산 4년!**
다시 시작합니다!”

행복한 시민을 위해
활기찬 우리고장 익산을 위해
건강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배숙이가
다시 뛰어보겠습니다



학력 및 경력

이리중앙초등학교 졸업
이리남성여중 졸업
경기여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대 & 동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 2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인천 지방검찰청검사 (최초 여성검사로 임관)
전) 수원·대구·서울 지방법원판사
전) 서울고등법원판사

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전) 제3대 여성변호사회 회장
전) 세천년민주당창당 발기인
전) 제16대 국회의원(비례)
전) 제17대 국회의원(전북익산을)
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전)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전) 제18대 국회의원(전북익산을)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전)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
전) 국회의원재직시 법사, 운영, 문광, 교육, 여성, 농림, 기획재정, 예결위원회위원으로 활동

저서

'진심에 불을 붙여라'
'식품산업이 미래다'
'바꾸면 변한다'
'내 마음의 보석, 익산'

공정 성장과 격차 해소

중산층 - 서민의 삶이 달라 집니다

국민의당 기호 3

조배숙

제20대 익산(을)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전북 익산시 어양동 657-1, 만석빌딩 3층

T. 063. 857-1500 F. 063. 857-5593

H. 010-3670-1263 | 010-4541-1261

이제 대한민국을 그리고 익산을
바꿔야 합니다!



<http://www.chobaesook.com>



<https://www.facebook.com/chobaesook>



<https://twitter.com/chobaesook>



http://blog.naver.com/victory_cho

| 익산(을) |

영동1동, 영동2동, 어양동, 삼성동, 동산동, 팔봉동, 금마면, 왕궁면, 삼기면, 낭산면, 여산면, 춘포면, 망성면